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형제여러분!

오늘은 전교주일로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은 후 얼마나 많은 이웃들에게 신앙을 전해 보았는지요? 우리는 신앙이 없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성당에 다니자는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더 나아가 세례 때 대부모를 세울라치면 너무나도 쉽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하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기 일쑤입니다. 물론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하는 대답으로도 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극적이고 이기적이고 너무나 적당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전교(傳敎)또는 선교(宣敎)는 복음화의 대상인 가족과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여 내가 알고 믿고 맛보고 체험한 하느님을 전하고 믿게 하는 일입니다. 이는 오늘 마태복음 28장19-20절의 말씀처럼 가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며 교회의 기본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어 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4-15)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화의 삶을 살아 주님을 들려주어야 하고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 선포하도록 나날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미사가 끝날 때 마다 사제가 “복음을 전합시다.”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파견되었으니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자신들이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속주의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복음의 힘으로 바로 잡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전교를 할 때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을 입어 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교활동을 나가기에 앞서 기도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전교를 잘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당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둘째, 귀찮아 할 때까지 말로써 전교하십시오.

셋째, 반할 때까지 멋지게 생활하십시오.

이 3대 원칙만 잘 지킨다면 우리 성당 자리가 모자랄 것입니다.

예천 본당 조상래 다미아노 신부

전 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당신이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더 나아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477번 '그 소리 온 땅으로', 66번 '주의 백성 모여오라'

본기도

†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2장 1절-5절

안 내 : 이사야 예언자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드는 환시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고 합니다.

묵 상 :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혼탁하고 불의하지만, 세상은 하느님의 구원으로 나아가야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룰 것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화 답 송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제2독서 : 로마서 10장 9절-18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묵 상 : 하느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와 전해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이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복음 28장 16절-20절

강　　론 :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1-2쪽)
예물준비성가 :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 178번 '성체 앞에'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과 생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공명을 이루고 함께 머물며
주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말이 주님의 햇살에 공명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해 뜨는 데 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는 날이 오기를 청해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50번 '만방에 나아가서', 441번 '주의 나라 임하면'

※ 공소사목 성금

상주가르멜수녀원장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37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기증 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10월 28일(연중 제30주일) 하망동 본당
· 11월 11일(연주 제32주일) 목성동 본당
※10:30 평신도 희년 폐막 미사

■ '성경 통독 일기' 연수(의성지구)

· 일시 : 8월 4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14~17시 10월 27일, 11월 3일
· 장소 : 의성성당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회비 : 1인 4만원
· 대상 : 의성지구 신자

■ 열린성경강좌 7

· 일시 : 11월 12일(월)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천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안계 본당 주임)

■ 여학생 수도 성소자 모임

· 상주/문경지구 일시 : 10월 21일(주일) 14:00
· 상주/문경지구 장소 : 모전동 본당

■ 예비신학생 10월 모임

· 일시 : 10월 21일(주일)
· 장소 : 교구청

■ 청년연합회 생활성가 음악캠프

· 일시 : 11월 11일(주일) 09:30~21:00 파견미사 18:30
· 장소 : 안동교구청 대강당
· 밴드 : 생활성가밴드 팍스(Pax)
· 참가비 : 1인 1만원
· 신청마감 : 10월 31일(수) 까지 사목국으로

■ 여학생 수도 성소자 전체 피정

· 일시 : 11월 18일(주일) 09:30 ~ 16:00
· 장소 : 안동교구청 대강당

▣ 꾸르실료 월례미사

· 일시 : 10월 22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10월 22일(월) 20:30
· 장소 : 예천 본당
· 강사 : 김영미 세실리아

▣ 생명 평화 특강-'안동댐과 낙동강이 죽어간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실태 고발)

· 일시 : 10월 29일(월) 19:30
· 장소 : 목성동 주교좌 성당
· 강사 : 이상식 대건안드레아(전 가농 전국회장)
· 주관 : 안동교구 사회사목협의회 안동지구 사목회

▣ 생명·환경연대 생태기행

· 일시 : 11월 3일(토)
· 장소 : 울산 태화강생태공원(십리대숲) - 울산 대왕암 공원
· 문의 : 안동 마명락 010-6300-1711 문경 안장수 010-8361-2087 상주 윤병권 010-7488-7564
· 참가비 : 1인 1만원(중식비 개인 준비)
· 선착순 : 120명

▣ 제16회 가톨릭의 밤-'돌담곁에 이끼' 밴드 공연

· 일시 : 11월 9일(금) 20:00 ~ 21:3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두봉관 2층 성당
· 대상 : 대학생, 청년, 일반교우

▣ 은총 제1차 꾸르실료 체험 신청 안내

· 일시 : 11월 15일(목) 16:00~18일(주일) 17:00 [3박 4일]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만원
· 접수마감 : 11월 2일(금)까지
· 신청자격 : 영세 후 3년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 받은 분, 70세 이상 어르신
· 신청 : 본당 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 가톨릭 상지대학교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 수시 2차 모집 : 11월6일~11월20일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18년 전교 주일 담화
(2018년 10월 21일)

젊은이들과 함께,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사명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삶의 여정을 일구어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교 신앙이 영원히 젊음을 지켜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모든 이를 향하여 말하도록 저를 다그칩니다.

삶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끌리는** 것과 **파견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젊은 시절에, 사랑의 내적인 힘으로 여기는 두 가지 움직임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미래를 약속하고 우리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 줍니다. 불현듯 들이닥쳐 우리를 이끌어 가는 삶의 힘을 젊은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느낍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무를 기쁘게 실천하는 일은 크나큰 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교회는 거저 받은 것을 선포하면서(마태 10,8; 사도 3,6 참조),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이끄는 바로 그 길과 진리를 젊은이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유를 일깨우시어 이러한 참되고 완전한 삶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고 선포하도록 북돋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놓는다는 것은, 그 불로 타오르는 사람을 완성시켜 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빛을 밝혀 주며 온기를 전하는 것입니다(2코린 5,14 참조). 우리에게 하느님의 드넓은 지평을 열어 주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이렇게 끊임없이 자문해 볼 것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의 내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땅끝까지 신앙을 전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도 세례성사로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사들

을 통하여 받은 신앙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여 세세대대에 이어지는 증인들의 위대한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다양한 단계의 공존 안에서, 교회의 사명은 세대를 이어 주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의 핵심인 신앙 전수는 사랑의 전파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쁨과 열정은 삶의 새로운 의미와 충만함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의 성사적 현존과는 여전히 이질적인 인간 문화 종교 상황들이 가장 변방인 "땅끝"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선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주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파견되었습니다(마태 28,20; 사도 1,8 참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만민 선교(*missio ad gentes*)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날 땅끝은 매우 상대적이며 언제든 쉽게 '항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세상, 곧 너무나 만연하고 언제든 이용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는 경계를 허물고 거리감을 없애며 차이를 줄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가깝고 바로 손닿는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교류가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참으로 우리 삶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결코 삶의 참된 친교는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에 동참하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느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헌신하여야 합니다(루카 9,23-25 참조).

사랑을 증언하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 참조)에게 봉사하는 길을 선교 자원봉사 활동 안에서 발견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인간 존엄을 증진하고 사랑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쁨을 증언합니다. 이 칭찬할 만한 선교 봉사의 기회는 보람찬 시작이 되고, 성소 식별을 통해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결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이번 10월 전교의 달에 젊은이를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우리가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그분의 사명을 위해 언제나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선교 제자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살림터 이야기

운수 좋은 날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차량접촉사고가 났다. 좌회전을 하려는데 직진하는 차가 있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지만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다. 더운 날씨라 슬리퍼를 신고 운전한 것이 탈이었다. 내차는 멀쩡했으나 상대방 차에 흠집이 났다. 경미한 접촉사고이긴 해도 당황스러웠고 종일 기분이 우울했다. 운전을 한지 30여년만의 첫 사고였다.

난 운전을 군대에서 배웠다. 무지막지하게 얻어맞으면서 배운 운전이었다. 나이 든 교관은 복창소리가 약하다고, 보면서 기어변속을 한다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다고 거침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한번 운행을 나가면 코피를 흘리는 것은 예사였고 얼굴이 퉁퉁 부울 정도였다. 생명과 직결된 운전을 허투루 배워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그렇게 배운 운전이었기에 누구보다도 안전운전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사고의 원인은 단순했다. 기본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리 더워도 슬리퍼를 신을 일이 아니었다. 안전을 위해서는 복장도, 신발도 제대로 갖추고 운전을 했어야 옳았다. 그 간단한 기본원칙을 무시한 대가는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즉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친 경우 이전에 부상을 당한 사람이 29명, 부상을 당할 뻔했던 사람이 3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내게도 여러 번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일들이 있었다. 앞 유리에 낀 성에를 대충제거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일, 운행 중에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일, 급하다고 차량을 앞질러 우회전 했던 일, 문을 닫지도 않고 출발했던 일 등등 운이 좋아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근거 없는 자신감과 안전 불감증으로 무시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기본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문제가 없고 탈이 생기지 않는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한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음을 맞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기도 한다.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동안 발생한 대형사고의 원인도 대부분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다. 기억도 까마득한 이리역 폭발사고,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그랬고 최근의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도 그랬다.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으면, 정기점검만 제대로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들이었다.

나도 오랫동안 운전을 하면서 별일이 없다보니 무감각해졌다. 자동차가 편리하기는 해도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여서 언제나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러고도 사고당시에는 온통 억울한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너무 안이하게 운전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첫 사고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 것만 해도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명피해도 없었으니 정말 운수 좋은 날이었던 셈이다.

나이가 들면 감각이 떨어지게 된다. 마음은 그대론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럴수록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어디 자동차 운전뿐일까? 우리의 삶에서도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다행인 것은 방심하는 순간마다 경고등이 반짝인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경고를 무시하거나 놓치지 않도록 마음과 눈을 활짝 열어둘 생각이다. 행운은 두 번 문을 두드리지는 않는다.